

##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중심으로

우정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1기 패널의 5차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생 370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고, 종속변수는 차별가해 행동이다. 통제변수는 성별,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이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 사회자본과 또래 사회자본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 증가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가족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 차별피해 경험, 인권

\* 경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9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하였고,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생존과 발전을 위한 권리, 보호받을 권리, 사회문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로 규정하였다(천정웅 2014). 우리의 정부도 1991년에 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이후로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함양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김경준 외 2014).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아동과 청소년이 인종, 성별, 연령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차별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부정적 인식을 축적하게 하고 청소년기 이후에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발생한 차별경험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정체성 형성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박건 2010).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차별가해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기존 청소년 차별 관련 연구에서는 차별피해 경험이나 폭력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태도나 학대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섯별 2016; 차유정·황의갑 2017; 김균희·공수연 2020). 또래집단인 청소년으로 부터 당하는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의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중고등학생의 차별피해 경험은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형 2016; 김균희·공수연 2020). 차별행동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인권교육 빈도는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형 2016). 인권교육 횟수와 인권도움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청소년들의 차별가해 경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권지식은 차별가해 행동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유은혜 2018: 92).

차별가해 행동의 선행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제한적인 가운데, 인권지식, 교육의 도움정도,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권지식의 축적과 인권교육은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도 차별 발생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인프라와 환경은 자라는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인데, 청소년의 환경과 인식 인프라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자본이다. 집단 구성원의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하는 규범과 신뢰의 사회자본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기에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차별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독보적인 한 연구에서 가족 및 또래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유은혜 2018). 사회자본과 인간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이 인간의 인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어져 왔다(Macinko & Starfield 2001; Smith & Polanyi 2003).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나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가족 사회자본 요소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박봉규 2007; 전준현 2011), 학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교실문화가 청소년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며(김영신 2010), 가족·학교·지역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부모의 지지, 교사와의 믿음, 지역 구성원간의 믿음이 청소년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천정웅·박선희 2016). 이와 같이 사회자본이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사회자본과 차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연구결과의 축적을 시도해야 한다.

시민의 책임의식 즉 지역 사회자본의 규범이 기부참여와 같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강철희 외 2011). 당연히 인간에게 내재된 가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차별에 관한 기존 연구(유은혜 2018)에서 사회적 연계망으로 측정된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자본의 규범과 신뢰 요소는 가치의 영역이기에 차별과 같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신뢰, 호혜성, 시민의식 같은 가치와 태도이며,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사회자본의 결과이자 사회자본의 부분이다(Croll 2004). 규범과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Coleman 1988). 즉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가치의 영역으로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히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재영·공태명(2010), 강철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자본인 규범이나 신뢰가 청소년 및 성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자본과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는 지역 사회자본을 사회적 연계망으로 측정하였고 규범이나 신뢰로 측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유의한 함의를 놓치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규범과 신뢰는 사회적 연계망에서 발생한

가치(유은혜 2018)로서 오히려 사회적 연계망보다도 인간의 행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특별히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또래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지역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인권과 차별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사전에서 정의된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 천부권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인권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으며, 인권

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학대, 폭력, 차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기 쉽다. 이에 이들을 보호하고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엔은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기보고서의 작성지침에 따라서 인권 지표체계를 6개의 영역으로 산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외에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영역으로 분류된다(천정웅 2014). 이와 같은 권리의 원칙들은 아동·청소년이 생존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참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동을 어른이나 부모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노혜련 1993).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원칙은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들이 인종, 성별, 연령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또래나 주변인들에 의한 인종, 성별, 국적, 연령, 장애 등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은 또래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 행위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정규형 2016). 우리 정부도 2008년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아동차별금지, 성차별 금지, 외국인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 인종 차별 금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양육환경과 기초적인 보전과 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의 교육·여가·문화 활동을 보장해

야 한다. 이중에서 차별금지 원칙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사회자본과 차별행동

### (1) 차별가해 행동과 차별피해 경험 관련 요인

최근에 청소년 차별의 선행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인구사회적 특성이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다(정규형 2016; 차유정·황의갑 2018).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1-2회 이상 차별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3.27배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균희·공수연 2020). 여학생의 경우 차별가해 행동의 회수는 낮으나 차별피해 경험과 성차별 피해경험에 있어서 높은 경험 수준을 보이고 있다(유은혜 2018).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피해 요인으로 가정형편이나 가족구성보다 학업성적이 훨씬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 요인에 있어서,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차별의 중심이 되는 성인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홍기혜 2019).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도 낮은 학업성적으로 인하여 차별과 무시를 받는 경험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 가정보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가해 경험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유은혜 2018). 김승경 외(2016)의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대체로 학교 학년이 높고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적, 외모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한 경험이 많다고 한다. 기존 연구에서 성별, 가정형편, 학업성적이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지만, 여전히 가정형편이나 가족구성의 요인과 같은

인구 사회적 특성이 차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소년 차별 관련 연구는 차별피해 경험이나 폭력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태도가 차별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모에게서 받는 학대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이설훈 2016; 차유정·황의갑 2017),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나 방임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가해 행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한다(김균희·공수연 2020). 또한 또래집단인 청소년으로 부터 당하는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의 요인으로 검증되었는데, 중·고등학생의 차별피해 경험은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는데, 성별, 학업성적, 나이, 가정형편, 지역, 외모, 종교, 부모존재여부, 장애, 다문화 등의 이유로 차별은 많이 당해 본 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가해 행동을 더 자주할 가능성이 높다(김균희·공수연 2020).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김희진(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물리적 공간인 학교에서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 시공을 초월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차별가해로 이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인권교육이 진행되면서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인권교육 빈도는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교육 도움정도는 차별가

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규형 2016). 인권교육 횟수와 인권도움에 대한 접근성 여부는 청소년들의 차별가해 행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인권지식은 차별가해 행동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혜 2018).

## (2) 사회자본과 차별행동

사회자본은 규범, 신뢰, 의무, 기대, 헌신의 가치, 사회적 연계망(Coleman 1988; Putnam 1995; Veenstra & Lomas 1999)으로 이루어진 무형의 자원이라고 한다. 이 자본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단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집단 구성원의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순기능 발휘를 돕는다. 안청시 외(2006)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은 구성원이 서로 돕는 협력의 가치로서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감과 유사하고 타인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신뢰는 타인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이 사회나 타인에게 헌신하면 언젠가 자신도 도움을 받으리라는 상호 호혜성을 낳는 기제이기도 하다. 상호 호혜성이 성립되어야 개인은 기꺼이 자신의 협력과 헌신을 타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연계망이다. 사회적 연계망을 통하여 타인과 사회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정보를 통하여 신뢰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회적 연계망은 신뢰와 규범을 가능하게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기적인 행동을 줄이고 구성원의 상호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 사회자본도 가족 구성원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 정신건강, 학업성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가족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학교부적응과 정신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강유진 2010; 김미정·정규석 2010; 김현숙 2011; Muris et al. 2001; Shek 2002). 또한 부모 애착, 부모 감독수준, 부모와 자녀의 대화 정도와 같은 가족 사회자본의 요소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장민·김신열 2010; 전혜숙·전종설 2018).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부모애착 등이 가족 사회자본의 척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또래 사회자본도 청소년의 학교 적응이나 건강, 비행과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래 사회자본은 친구 수, 친구의 도움정도,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애착정도로 측정되는데(박성준 2018),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애착의 정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채선화·김진숙 2015; 배은경·최은숙 2016). 또래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일탈행동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가족 사회자본 혹은 또래 사회자본의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일탈행동 감소 및 정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사회자본과 청소년 차별을 연관 지어 살펴보면,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 사회자본 요소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청소년의 인권 권리의식이 높다고 한다(박봉규 2007). 이처럼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서 부모의 인권교육은 중요하다고 제시된다(전준현 2011). 또한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청소년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친인권적 교실문화와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영신 2010).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지지, 교사나 학교 학생간의 믿음, 지역 구성원간의 믿음과 같은 사회자본 요소들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검증되기도 하였다(천정웅·박선희 2016). 청소년의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사회자본이 차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명확히 증명할 만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자본이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차별의 관계 분석을 시도한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이나 단체활동과 같은 지역 사회자본은 차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형제, 친구의 사회적 연계망을 활용할수록 차별피해 경험과 성차별피해경험이 감소하고 성차별가해 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유은혜 2018). 유은혜(2018)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지게 되는 가족 사회자본이나 또래 사회자본은 차별피해경험을 줄이기도 하지만, 차별을 규범으로 가지고 있거나 차별에 대해 감수성이 낮은 사회적 연계망이라면 차별가해행동을 높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유사 연구들을 검토하면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이나 차별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태도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Macinko & Starfield 2001; Smith & Polanyi 2003; 김민수·이현지 2019). 가족 사회자본과 학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부모의 신뢰와 통제 그리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한다(이재영·공태명 2010). 이 연구를 통하여, 가족이나 학교 사회자본이 윤리적·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 사회자본과 학교 혹은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진 사회자본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신경아·한미정 2009). 또한 사회자본의 규범에 해당하는 시민의 책임의식도 기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강철희 외 2011). 이 연구들은 지역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규범과 신뢰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보여준다. 지역 사회자본에서 규범이나 신뢰와 같은 요소는 가치의 영역이다. Croll(2004)과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규범과 신뢰와 같은 가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치들은 구성원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 신뢰와 같은 가치의 영역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 가족 및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규(2007), 김영신(2010), 전준현(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지, 친인권적 교실문화와 같은 가족 사회자본 구성요소와 또래 사회자본 구성요소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영향

을 미친다면, 가족 사회자본과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천정웅·박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구성원의 믿음과 같은 지역 사회자본 구성요소가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사연구인 신경아·한미정(2009), 강철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책임의식 즉 규범과 같은 지역 사회자본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자본을 사회적 연계망으로 측정하였고 규범이나 신뢰로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익한 함의를 놓치게 되었다. 이재영·공태명(2010), 강철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규범이나 신뢰가 청소년 및 성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로 구성된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정규형 2016; 차유정·황의갑 2018; 홍기혜 2019; 김균희·공수연 2020)에서 차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가정경제 수준을 인구사회적 특성의 통제변수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섯별(2016), 차유정·황의갑(2017), 김균희·공수연(2020), 정규형(2016), 홍기혜(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나 또래 친구로부터의 학대나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어서 차별피해 경험을 통제변수로 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독립변수는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며, 종속변수는 차별가해 행동이다. 성별,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

해 경험을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또래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의 대상은 2015년에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1기 패널의 5차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으로 중·중학교 2학년생 370명이다. 1기 패널의 모집단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전국 3,690개 센터의 총 13,206명이다. 표본은 층화집락표집방식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층화의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모집단 분포에 기초한 제곱근비례배분방식으로 할당되었다. 조사단위가 되는 집락별 집락(센터)의 수는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 수를 센터 당 평균 표본수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이 절차를 통하여 2011년 1차 조사의 원 표본은 전국 179센터의 638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표본 이탈로 인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5차 조사 표본은 370명이다(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8).

## 3) 측정도구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1기 패널의 5차 조사는 청소년의 개인 발달영역과 발달 환경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이 패널조사의 응답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에 대해 척도의 출처, 척도구성, 타당도, 신뢰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타당

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 KMO는 .801로 나타나서 각 변수들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69.14%로 나타났다.

## (1) 독립변수

### ① 가족 사회자본

김장민·김신열(2010), 전해숙·전종철(2018)은 부모애착, 부모 감독수준, 부모와 자녀의 대화 정도로 가족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감독수준과 부모 자녀의 대화 정도가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부모의 감독수준 척도와 부모와 자녀의 대화 척도로 가족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부모 감독수준 척도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이다. 응답범주는 1 = 매우 그렇다, 2 = 그런 편이다, 3 =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값이 클수록 사회자본이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와 자녀 대화수준 척도는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화’이다. 응답범주는 1 = 거의 하지 않는다, 2 = 일주일에 1-2회, 3 = 일주일에 3-4회, 4 = 일주일에 5-6회, 5 = 매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개 척도들의 공통성은 0.4 이상이었고, 요인적재치는 .698 이상으로 나타나서 타당도는 확보되었으며, Cronbach's $\alpha$  = .794로 신뢰도 역시 문제는 없었다. 이에 가족 사회자본의 값은 7개

척도들의 평균으로 하였다.

## ② 또래 사회자본

채선화·김진숙(2015), 배은경·최은숙(2016)는 친구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애착의 정도로 또래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천정웅·박선희(2016)은 학생간의 믿음으로 또래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이들을 고려하여 또래 사회자본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또래애착 중에서의 의사소통과 신뢰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의 척도는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뢰의 척도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이다. 응답범주는 1 = 매우 그렇다, 2 = 그런 편이다, 3 =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값이 클수록 사회자본이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3개 척도와 신뢰 3개 척도 모두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6개 척도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요인적재치는 .719이상으로 나타나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6으로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또래 사회자본의 값은 이 6개 척도들의 평균으로 하였다.

## ③ 지역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을 규범과 신뢰로 측정하였다. Putnam(1995)과 서혜숙(2006)은 지역 사회자본의 규범을 상호협력이나 타인을 돕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공동체 의식에 해당하며, 이 척도로 지역 사회자본의 규범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척도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국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우리 가족, 학교, 사회,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돈이나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이다. 응답범주는 1 = 매우 그렇다, 2 = 그런 편이다, 3 =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자본 신뢰에 있어서, Fukuyama(1995)와 서혜숙(2006)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공적제도 신뢰로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같은 내용을 조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지역사회 평가내용을 지역 사회자본 신뢰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나는 길거리에서 우리 동네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이다. 응답범주는 1 = 매우 그렇다, 2 = 그런 편이다, 3 =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성되었다.

값이 클수록 지역 사회자본이 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규범 4개 척도와 신뢰 5개 척도를 역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척도는 값이 클수록 사회자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역 코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10개 척도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요인적재치는 .678이상으로 나타나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의 척도가 같은 그룹으로 묶이지 않아서 이 척도를 제외하였다. 이후에 9개 척도들의 신뢰도 결과는 Cronbach's $\alpha$  = .829로 신뢰도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지역 사회자본의 값은 9개 척도의 평균으로 하였다.

## (2) 종속변수

김경준 외(2014)의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의 차별경험 척도를 재구성한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차별에 대한 척도로 차별가해 행동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차별가해 행동

차별가해 행동 척도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이다. 응답 범주는 1 = 한번도 없음, 2 = 일 년에 1-2회 정도, 3 = 한 달에 1-2회 정도, 4 = 일주일에 1-2회 정도, 5 =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다. 값이 클수록 차별가해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8개 척도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요인적재치는 .514이상으로 나타났다. 2개 척도의 요인적재치가 .6이하인 .533과 .514로 나타나서 다른 척도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다른 그룹의 척도들과 .4이상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2개 척도를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였다. 타당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신뢰도 결과는 Cronbach's  $\alpha = .801$ 로 신뢰도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차별가해 행동 값은 8개 척도의 평균으로 하였다.

### (3) 통제변수

통제변수를 지역아동센터 패널 조사의 성별,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으로 하였다.

#### ① 성별

성별은 1 = 남자, 2 = 여자로 측정되었다. 0 = 남자, 1 = 여자로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 ② 가정경제수준

가정 경제수준은 1=매우 못 산다 ~ 7=매우 잘 산다 로 측정되었다.

#### ③ 차별피해 경험

차별피해 경험 척도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이다. 응답 범주는 1 = 한번도 없음, 2 = 일 년에 1-2회 정도, 3 = 한 달에 1-2회 정도, 4 = 일주일에 1-2회 정도, 5 = 일주일에 3회 이상이다. 값이 클수록 차별피해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6개 척도들의 공통성은 0.4 이상이며 요인적재치는 .713이상으로 나타나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6개 척도들의 Cronbach's  $\alpha = .787$ 로 신뢰도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차별피해 경험의 값은 6개 척도의 평균으로 하였다.

#### 4) 자료 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 검사로 Cronbach's $\alpha$ 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술 분석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 1>과 같다. 응답한 청소년은 총 370명이다. 응답청소년의 성별에 있어서, 남성은 178명(48.1%)이고, 여성은 192명(51.9%)이다. 이들의 가정경제 수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이 88명(23.8%), 차상위가 84명(22.7%), 사각지대가 65명(17.6%), 보통수준이 119명(32.2%), 보통수준 보다 잘 사는 청소년 13명(3.5%), 매우 잘사는 청소년이 1명(0.3%)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가족 사회자본은 5점 만점의 평균 2.51, 또래 사회자본은 4점 만점의 평균 3.13, 지역 사회자본은 4점 만점의 평균 2.86으로 나타났다. 차별가해 행동은 5점 만점의 평균 1.11이고, 차별피해 경험은 평균 1.11로 나타났다. 차별가해 행동과 차별피해 경험의 척도가 10을 훨씬 넘어서 정규분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응답자의 80% 정도가 차별가해 행동이나 차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1에 응답하였

〈표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 = 370

변인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왜도	첨도
성별	남자	178(48.1%)	-	-	-	-	-	-
	여자	192(51.9%)	-	-	-	-	-	-
가정 경제 수준	기초생활수급대상	88(23.8%)	-	-	-	-	-	-
	차상위	84(22.7%)	-	-	-	-	-	-
	사각지대	65(17.6%)	-	-	-	-	-	-
	보통수준	119(32.2%)	-	-	-	-	-	-
	보통보다 잘사는 편 매우 잘사는 편	13(3.5%) 1(0.3%)	-	-	-	-	-	-
가족사회자본	-	-	1.00	4.57	2.51	.62	.881	.791
포대사회자본	-	-	1.33	4.00	3.13	.49	.04	.20
지역사회자본	-	-	1.00	4.00	2.86	.42	.19	.87
차별가해행동	-	-	1.00	3.25	1.11	.28	4.14	22.61
차별피해경험	-	-	1.00	3.17	1.11	.29	4.02	19.46

고, 대부분의 응답이 평균인 1.11에 몰려있기 때문에 첨도가 높게 나타났다. 차별관련 행위가 보편적인 행동이 아닌 만큼 정규분포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연구주제 자체의 특성이라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았다.

## 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 2>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009 ~ .401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	성별	가정경제수준	차별피해경험
가족 사회자본	1					
또래 사회자본	.308**	1				
지역 사회자본	.264**	.401**	1			
성별	.075	.065	-.108*	1		
가정경제수준	.200**	.120*	-.009	-.017	1	
차별피해경험	-.016	-.143**	-.108*	.014	-.017	1

\*  $p < .05$ , \*\*  $p < .01$

### 3)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먼저 독립변수인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 3>과 같이 나타났다. F값은 24.548이고  $p < 0.001$ 이하로 나타나서 연구모형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R^2$  값은 .277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7.7%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족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beta = .089, p = .066$ ). 또한 또래 사회자본도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58, p = .205$ ). 그러나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 - 3.155, p < .01$ ). 이는 지역 사회자본이 감소할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성별,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차별가해 행

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 -.145, p < .01$ ).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 -.094, p < .05$ ). 가정경제가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1, p < .001$ ). 차별피해 경험치가 높으면 차별가해 행동치도 높다는 것이다. 차별피해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차별가해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 3〉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B	t
독립변수	가족 사회자본	.040	.022	.089	1.842
	또래 사회자본	.033	.028	.058	1.152
	지역 사회자본	-.103	.033	-.157	-3.155**
통제변수	성별	-.081	.025	-.145	-3.219**
	가정경제 수준	-.021	.010	-.094	-2.073*
	차별피해경험	.463	.042	.491	10.945***
	상수	.795			
	R <sup>2</sup>	.287			
	Adjusted R <sup>2</sup>	.277			
	F	24.548***			

\*  $p < .05$ , \*\*  $p < .01$ , \*\*\*  $p < .001$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사회자본이 청소년들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족 사회자본, 또래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인권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차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진(2010), 김장민·김신열(2010), 김현숙(2011), 전해숙·전종설(2018)의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학업성취,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애착, 부모와 자녀의 유대 정도가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유은혜 2018)와도 일치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감독수준과 빈번한 대화정도를 유지할지라도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계 값의 유의수준은 .066으로 유의수준 .05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족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과 활용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건강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성준(2018), 배은경·최은숙(2016) 연구결과와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천정웅·박선희(2016)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또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는 또래자본의 구성요소인 친구 상담자의 존재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 정도와 신뢰 척도로 측정된 또래 사회자본은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사회자본이 감소할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지역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사회자본이 청소년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유은혜(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구성원간의 믿음과 같은 지역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고(천정웅·박선희 2016), 규범과 같은 책임의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강철희 외 2011)와 큰 맥락에서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지역 사회자본이 개인의 사회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는 학교 내의 제한된 동아리활동 여부와 단체활동 여부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즉 지역 사회자본으로 규정하였고, 이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이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신뢰, 호혜성, 시민의식 같은 가치와 태도이다(Croll 2004). 네트워크, 규범과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Coleman 1988). 즉 규범, 신뢰와 같은 지역 사회자본의 가치의 영역이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과 협력을 도모하는 친 사회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아리나 단체 가입 여부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차별가해 행동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비교한다면, 규범과 신뢰의 가치 영역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사회를 위한 헌신, 기부나 자원봉사 의지의 규범의식과 강한 이웃과의 유대가 타인을 차별하는 행동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결과, 통제변수 중에서 성별과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차별가해 행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형(2016), 유은혜(2018), 차유정·황의갑(2018), 김균희·공수연(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는 인권교육이나 차별행위 억제제를 위한 지도와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남학생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김승권 외(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유은혜(2018), 홍기혜(201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유은혜(2018)의 연구에서는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피해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홍기혜(2019)는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 피해는 낮은 수준이고 가정경제 수준이 차별가해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이 기존 연구결과들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대상인 지역아동센터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을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평가로 조사한데 비하여,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는 중간이하의 소득수준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사각지대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고, 센터 실무자가 기입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바로 이점이 조사결과에 반영되어 본 연구결과가 일부 기존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 같다.

다섯째,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에서 통제변수인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선태(2016), 차유정·황의갑(2017), 김균희·공수연(2020)은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규형(2016), 홍기혜(2019)의 연구에서도 또래로부터의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기존 연구결과와 상이하지 않았다.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은 차별가해 행동에 상당히 강력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지역 사회자본이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사회자본 즉 지역사회에 대한 규범과 신뢰가 청소년의 인권 친화적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혹은 이웃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활동은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 지역에 대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자본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이 윤리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주경희 외 2015). 따라서 청소년들의 차별가해 행동 감소와 친인권적인 행동 유도를 위하여 지역 사회자본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사회자본보다도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으로 순환되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피해의 상처를 회복하고,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피해 청소년의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관리에 힘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차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자본과 차별가해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특별히 청소년 지역 사회자본의 규범과 신뢰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규범과 신뢰의 지역 사회자본이 조사된 지역아동센터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차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분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함으로써 탐색적 연구의 특성을 지닌다. 앞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어 일반화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3일 접수, 11월 9일 심사완료, 11월 1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유진. 2010.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323-339.
- 강철희·조승종·안성호. 2011. “저소득층의 기부행동에 관한 연구 - 기부 참여와 기부노력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88-120.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2014.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Ⅳ』.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균희·공수연. 2020.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교육문화연구』. 26(3). 691-706.
- 김미정·정규석. 2010.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사회자본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지역 거주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9. 37-59.
- 김민수·이현지. 2019. “청소년이 인지한 지역 사회자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8(2), 153-173.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장민·김신열. 2010. “지역사회 취약성, 지역사회자본 및 가족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과학연구』. 26(3). 153-174.
- 김현숙. 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학생과 비 빈곤 학생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

- 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 19(3). 187-209.
- 노혜련. 1993.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행동 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 민간단체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서울. 11월.
- 박건. 2010. “차별 이해 지평의 확장을 위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 10(1). 255-292.
- 박봉규.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 .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준.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 29(2). 241-269.
- 배은경·최인숙.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 27(1). 33-63.
- 서혜숙. 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경아·한미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에너지 절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 11(3). 126-157.
- 안청시·장훈·강원택·김학노·김하영·유석진·백창재.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서울: 박영사.
- 유은혜. 2018. “인권교육, 사회자본과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1(2). 75-97.
- 이섯별. 2016. 『중학생의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영·공태명. 2010. “가정·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연구』 . 17(3). 61-82.
- 전준현. 2010. 『사회적 지지와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혜숙·전종설. 2018. “가족 및 학교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온라인 오프

- 라인 비행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 44. 99-130.
- 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 55. 31-55.
- 주경희·신재원·김향미. 2015. “사회자본이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 15(4). 119-125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조사개요』 .
- 차유정 ·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 13(3). 135-154.
- 채선화 · 김진숙.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 16(4). 339-358.
- 천정웅. 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V: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천정웅·박선희. 2016.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 14(4). 151-161.
-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 27(1). 33-6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roll, P. 2004.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2(4). 390-416.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London: Hamish Hamilton.
- Macinko, J. & B. Starfield. 2001. “The utility of social capital in research on health determinants.” *The Milbank Quarterly*. 79(3). 387-427.
- Muris, P., Schmidt, H., Lambrichs, R., & Meesters, C. 2001. “Protective and vulnerability factors of depression in normal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555-565.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664-683.
- Shek, D. 2002.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215-230.
- Smith, P. & M. Polanyi. 2003. "Social norms, social behaviour and health: an empirical examination of model of social capit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7(4). 456-463.
- Veenstra, G. & Lomas, J. 1999. "Home is where the governing is: social capital and regional health governance." *Health & Place*. 5(1). 1-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Acts of Discrimination  
in Youths  
-Focused on the Youths Using Community Children's  
Center-

*Woo, Jungj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the social capital of peer, and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affect adolescents' the acts of discrimin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370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 who responded to the fifth survey of the first panel of the Children's Panel Survey in the Community Children's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the social capital of peer, and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acts of discrimination. The control variables are gender, family economy level, and experiences of being discriminated. The analysis methods a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ASW Statistics 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capital of family and the social capital of peer do not affect discrimination acts. Second, as the social capital of community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min University, Professor

increases, the act of discrimination decreases, and the social capital of norms and trust i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adolescents' act of discrimination. Adolesc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community-centered participation programs that increase community social capital of norms and trust in order to decrease the act of discrimination.

**Key words** : social capital, youth, discrimination, human rights